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2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6일(금) ~ 6월 8일(일) |
| 3 | 장 소 | 성문안 [아웃(OUT) / 인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㈜셀트리온, ㈜셀트리온홀딩스, ㈜셀트리온제약, ㈜셀트리온스킨큐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,600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49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민지, 정윤지, 이예원, 박현경, 홍정민, 김민선7, 방신실, 김민주, 박보겸  지한솔, 고지우, 이채은2, 정지효, 김시현, 송은아, 마다솜, 노승희, 황유민  조정민, 김서윤2, 오수민(A), 최정원(A), 홍수민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2R 4언더파 68타,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6-68) 공동 선두 이가영(오후 6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83>

**소감**

오늘 초반부터 샷 감은 정말 좋았는데 퍼트가 정말 아쉬웠다.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더니 버디를 하나씩 잡았다.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하루다.

**아쉽게 돌아 나온 퍼트가 많았다. 특히 마지막 홀 버디 퍼트도 돌아 나오면서 1타차 선두로 마칠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?**

1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 같긴 하지만, 이 코스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 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.

**공동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했다. 각오?**

우승 기회가 온 만큼 잡으려 노력하겠다. 다른 선수들도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선수들의 실수를 바라기 보단, 내 플레이에 집중할 생각이다.

**관건?**

오늘 샷이 좋아서 버디 찬스가 많았는데 못 넣었다. 우승하려면 내일은 버디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.

**◈ 2R 6언더파 66타,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8-66) 공동 선두 윤수아(오후 6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990>

**소감**

오늘 전체적으로 잘 풀린 하루다. 샷이 좋아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어 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.

**가장 만족하는 부분?**

사실 지난주부터 퍼트 감이 올라왔다고 느끼고 있었다. 퍼트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 샷도 더 자신 있게 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다.

**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성장했나?**

티 샷이 많이 안정됐고 멘탈적으로도 나아졌다.

**처음 우승 경쟁을 하게 됐는데 내일 각오?**

정규투어에서 공동 선두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. 오늘 순위보다는 내 플레이에만 집중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라 내일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플레이하고 싶고, 골프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겠다. 그리고 퍼트에 자신감이 붙어 있으니 티 샷만 조금 더 나를 믿고 치면 되지 않을까 싶다.

**◈ 2R 5언더파 67타,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(73-67) 박민지(오후 6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>

**소감**

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절대 집에 가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플레이 했다.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, 샷이 좋아 기회가 많았고 퍼트가 잘 떨어져 주기도 하면서 언더파로 들어와 기쁘다. 그리고 오늘 대회 컬러인 초록색으로 입고 나왔는데, 베스트 드레서 하고 싶었다.(웃음)

**오늘 가장 좋았던 샷을 꼽는다면?**

오늘 좋은 샷이 정말 많았다. 베스트를 꼽으라면 전반 9번 홀 세컨드 샷이다. 디보트 안에 있었지만 임팩트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좋은 샷이 나왔고, 버디를 잡았다.

**어제와 기분이 다른지?**

어제는 결과가 실망스러운 느낌이었다면, 오늘은 언더파로 마쳐서 기분 좋다. 담담하게 남은 라운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 연습하겠다.

**남은 라운드 각오?**

내일 오후에 날씨가 변수일 거 같다. 6언더파 이상은 쳐야 할 거 같은데 코스 컨디션이 정말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다.

**◈ 2R 4언더파 68타,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(68-68) 홀인원 기록자 최혜원(오후 6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992>

**-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대회 첫 홀인원(6번 홀)**

**\*부상: 500만원 상당의 코지마 카이저더블 안마의자)**

**- KLPGA투어가 열린 성문안에서 역대 첫 번째 홀인원**

**홀인원 소감?**

정규투어에서 처음 해보는 홀인원이라 뜻깊고 기쁘다. 그리고 성문안에서 열린 KLPGA대회가 이번 대회까지 2번인데 내가 첫 홀인원이라고 해서 더욱 기쁘다.

**홀인원 상황?**

140미터였고,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7번 아이언으로 풀 샷을 쳤다. 들어가는 것은 희미해서 잘 못봤는데, 갤러리 분들이 들어갔다고 소리 쳐서 알게 됐다.

**홀인원 들어간 것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?**

놀랐다. 드디어 했구나 싶었다. 갤러리 분들과 동반자에게 축하 많이 받았다. 감사했다.

**생애 몇 번째 홀인원인가?**

6번째다. 드림투어에서 1번 홀인원 해본 적 있다. 나머지는 다 연습라운드였다.

**부상?**

안마기를 받았는데, 항상 따라다녀 주시느라 힘든 부모님께 드리겠다.

**상위권에 있는데 내일 각오?**

우승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중상위권 안에만 있으면 좋겠다. 긴장되겠지만,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자신 있게 플레이 해보겠다.